

보도	2023.6.29.(목) 10:00	배포	2023.6.29.(목)		
담당부서	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종오	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문선기	(02-3145-7447)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참석 및 소상공인 간담회 실시

I . 개 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월 29일(목) 우리카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였음
 - 이 자리에서 우리카드는 영세 카드가맹점·취약계층을 위한 총 2,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*을 발표하였으며,
 - *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대상 신규대출(800억원), 영세·중소가맹점 카드 이용대금 캐시백(100억원), 연체차주 저리 대한대출·채무감면(1,300억원), 가맹점주 대상 상권분석·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
 - 금감원장은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, 이러한 노력이 금융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
- 이후 금감원장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, 영세 카드가맹점주(5명)와 함께 소상공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
 -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과 채무상환유예 종료('23.9월)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,
 - 금융소비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카드 가맹점 컨설팅, 특화 금융상품 개발 등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실천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

소상공인 간담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3. 6. 29.(목) 10:00 ~ 10:40
- ☑ 장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
- ☑ 참석자: (금 감 원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박상원 중소서민금융 부원장보
(우리금융)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,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
(소상공인)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, 영세 가맹점주(5명)
(굿네이버스) 김중곤 굿네이버스 사무총장

II.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

-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소상공인분들과 간담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,
 -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여력이 녹록지 않음에도 의미있는 상생 금융 방안을 마련해 준 우리카드에 감사를 표하면서, 금융권 전반에 이러한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음
- 금감원장은 현재 소상공인은 새로운 대출을 받기도,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,
 - 이런 때일수록 금융회사들이 '비율 때 우산 뺏기' 식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과 재기를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
- 특히, 최근 제2금융권이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,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함을 언급하고,
 - 경기 침체기에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 - 또한, 그간 은행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하였는데,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
- 아울러, '23.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시 既마련한 연착륙 지원 방안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음
 - 다만,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차주별 상환계획서를 현실성 있고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고
 - 9월까지 차주별 1:1 면담 실시, 필요 시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 마련 등 연착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
- 한편, 이복현 원장은 금융회사와 소비자는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 관계이므로 단기적인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의 금융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하면서,
 -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카드가 발표한 카드 가맹점 상권분석·마케팅 지원방안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였음
 - 또한, 금융회사들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금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,
 - 은행·보험*뿐만 아니라 카드, 금투 등 다른 업권에서도 다양한 상생금융 상품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
- *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'상생·협력 금융신상품'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은행 5개, 보험 2개 등 총 7개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
- 끝으로, 이복현 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음

※ (붙임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